

8만 암자 자취없고 4개 절만...

주부신행담

세상의 손발 되어 ④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그리운 금강산을 가다

(2)

김'에서부터 비로봉, 세존봉, 관음봉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강산은 가히 불교의 산이라고 해야 옳을 듯 싶었다. 금강산 등장에서 처음 부딪힌 관공이 신계사터요, 마지막 보고내려 온 것이 미곡봉이라는 구룡폭포 옆의 암자 굴씨였으니 금강산 관공은 불교로 시작해서 불교로 끝나는 것 같았다.

을 불러일으키는데 천만 다행 인적이 나한전, 칠성각터 등이 잘 표기되어 있고 국보 유적95호라는 석비가 그대로 새날의 묵락소리를 예견하는 듯 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북한은 모든 사찰을 복원할 현안은 못되지만 문화유적 차원에서 복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의지는 신계사 하나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관법사를 비롯, 정릉사를 복원했으며 조선불교도연맹 청사내에도 법당을 구비해 놓고 있었다.

표훈사·보덕암 등 보존

현재 금강산에 보존되고 있는 사찰은 내금강의 삼성암, 표훈사, 보덕암, 경양사 등이 있고 묘길상과 삼존불등 암자 석불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불교도연맹 간부들을 만났을 때 신계사 복원문제들을 거론하자 북한에서는 모든 불교 유적은 정부차원에서 복원함으로써 그 의지의 비중은 애써 외면하려는 눈치였다. 민족의 영산이 백두리엔 불교의 성지인 금강엔 언제쯤 우리 불자들의 순례 발길이 닿으려나.

상당의 목적은 종교를 초월하여 고통받고 상의할 곳조차 없는 어려운 이웃들의 상대가 되어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지만 사찰에서 상담전화를 운영하다보니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꼭 도와줘야 할 경우도 종종 있었다. 지방부처에 군법당을 세우고자 하는 젊은 군인들위해 모금을 해서 도와주기도 했다. 일년에 한 번 여러곳에서 애써준 보탬이 있어서 법당이 완공되어 기념공공법회가 열리고, 꼭 참석해 달라는 군인불자들의 요청에 화원들과 음식과 책을 준비해 부대를 방문하여 함께 법회를 보았다.

과로움을 호소하는 곳을 일일이 찾아가 과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가끔 꼭 찾아가 도와 줄 곳이 생기기도 한다.

한번은 다른 상담기관에서 의뢰해 왔다. 불자인데 오랜 지병으로 요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외출도 어렵고 밥도 겨우 해 먹는다고 했다. 특히 김치가 이미 떨어져서 일찍 일어나는 외아들 아침 밥도 못해줘 혼자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굶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다.

평생을 부처님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이웃의 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들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 다음

"교회에 나오면 도와 주겠다는 말에 순간 솔깃했지만 '우리는 불자가정입니다.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밝혔습니다" 미흡한 포교를 반성해야 할 말이었다.



신계사 절터 ◇금강산 입구 국립고개마을의 신리고굴 신계사터(국보유적96호). 17기의 석탑만이 제자리에 서 있고, 담자가 있던 빈터엔 표시가 잘 되어있다. 2명의 관리인이 관리한다.

신계사·유점사등 남북 공동복원 했으면 바위마다 金부자 찬양문구...자연 훼손커

본 적이 없었다. 바로 집을 이루지 못한 나는 12층의 휴게소에 올라갔는데 입구에 노래방이라고 표기된 곳이 있어 호감이 가 들어갔으나 화상반주기는 없고 테이블 돌리는 학생기생이었다. 안내를 맡은 금강산 처녀들은 노래를 신청하라 하는데 막상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없고 자연히 이루어진 합창이 고향의 불교공영인 '금



한때 팔만구암자가 있어 아침이면 봉우리 암자마다 솟는 밥짓는 연기가 일품이었다는 금강산에는 이제 절이라고는 4개가 전부다. 안내원이 그 옛날의 신계사, 유점사 빈절터의 영화로움을 전해줄 뿐 금강산 입구 관음봉과 문필봉을 가로 건너 국립고개 밑에 있는 신라시대 고찰 신계사는 이제 1개의 석탑만이 제자리를 지키는 대들로는 더하고 당간지주는 누워있다. 배밭으로 변한 대웅전 뜰에는 장안사 노래의 추억

금강산 관공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위마다 새겨진 무수한 김주석 일가의 찬양 문구다. 그 엄청난 작업을 어떻게 해냈는지도 의문이 거니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자연은 훼손되지 않은채 보존되는 것이 인류의 상식이다. 기본 사람으로서 불교 그 체제와 입장은 이해하거나 이해 더이상과 관공은 안된다. 그것이 필자의 간곡한 서원이었다. 그러나 한편 북쪽에서 재작 출간된 금강산 안내 도록을 펼쳐보면 어디에도 그런 사전을 신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떤 감이 잡혀오는 것 같기도 하다.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발길은 이러한 감정 탓일까 내내 봄비가 내렸다.

하고 인식또한 저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다들스러운 것은 뜻있는 지역사찰이나 스님 그리고 군법사들의 노력으로 군법당이 세워지거나 법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행운인 편이었다. 이 부대도 예외없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었고 필요하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가 앞서서 어떤 간식을 준다고 했다. 종교를 떠나서 초코파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교회를 가는 군인도 많다고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섰다. 불교계가 군법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군에 입대하여 정신적 방황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듣는다. 육체적 훈련을 이겨나가며 마음붙일 곳, 의지처가 필요한 군생활에서 종교에의 귀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군은 청년불자의 포교분야에 중요한 곳이라고 법사님은 이야기하며 관심을 가져주시길 우리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상담실 본연의 자세에서 약간의 외유였다.

심장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불교의 포교 방법이다. 제도적인 봉사활동의 미흡은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평생을 불자로 살아왔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여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는 개종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도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왔던 터라 공감이었다. 그 불자 가정의 단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선 급한 쌀과 김치를 담구어 다음날 찾아가 전해 주었다. 연신 그는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 진찰받기 위해 미리 말해놓은 불자 내과의사신생님을 찾아가 진료를 받게 해 주었다. 심한 당뇨병에 합병증 거니다 정신적인 불안까지 겹쳐 더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신생님은 무료로 치료를 주었고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있다. 상담을 하고 싶지만 내담자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쉽지않다. 한가지 일만도 북한 일인데 다행히 부처님께서 아직은 건강한 몸을 주신 가피로 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이웃의 귀와 손이 되어주려고 한다. 동 여래성(구룡사 진리의 전파 회장)

생활 속의 불교 27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 나는 남편의 여종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이다. 남편은 아내의 여종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이다. 아내는 아내대로 때에 따라서 여종이 되었다가 어머니가 되었다가 해야 할 것이요, 남편 또한 상황에 따라 여종 역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아내·현명한 남편이란 감싸 줄 때와 타이올 때를 잘 알고 양보할 때와 주장할 때를 잘 살피는 사람이다.

내 가정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 가정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곳이다. 아니, 가정은 불국정도의 실현장이다. 가정엔 자비와 사랑이 있다. 이타(利他)의 가르침이 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사랑의 위대성을 배우고 인격의 조화를 배우고 성의 조화를 배우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배운다. 자녀들에게 가정은 경동·자애·화합·질서·윤리의 수련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정은 불국정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곳이다. 가정을 불국정도로 닦게 하라.

나 의 가장·나의 가족을 체쳐두고 먼 데 일을 이야기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또다른 욕심일 뿐이다. 마치 포경만 그럴싸한 질 낮은 상품 같이. 그렇다고 나의 가정·나의 자녀에 대해 예학을 가지라는 말은 아

니다. 예학은 버려져 인연은 거버리지 않아야 한다. 인연따라 거두는 것. 그것은 보살행이다. 왜냐하면 가령 아버지·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먼저주고 인도해주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되고, 나 하나로 인해 여럿이 희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가 정이 불국정도를 닦게 하려면 몸으로 불질로 대응하기에 앞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편, 아내 자녀 간에는 눈빛만 보아도 심중을 헤아릴 만큼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다이얼을 돌리지 않아도 무선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마음으로 북돋아주고 거품을 주어야 소리도 지르고 재벌을 가져하지 않아도 상대를 내 마음 속에 넣고 타없는 사랑으로 감싸면 반드시 통하게 된다.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게 불법을 따르는 것이다. 가정은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협찬: 김재환